

## 해양수산부, 중동 상황 관련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조간담회 개최

- 우리 선원 안전에 대한 노조 건의 사항 청취, 정부의 대응현황 등 설명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안전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노조”)과 3월 4일(수) 오전 해양수산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해역에 취항하는 다수의 선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 요청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아들여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의 안전을 위해 생필품, 선원 교대 지원, 상황악화 시 현지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을 건의하였으며, 현지 선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 머무르고 있는 선원과 선박의 명단을 확보하여 선박과 선사에 안전 사항, 생필품 현황, 선원교대 상황 등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원 안전 확보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3월 3일(화) 16시부터 선원 비상 상담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선원들의 고충, 불편사항 등을 직접 접수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노조에는 선사의 일방적인 선원 하선 요구 거부 등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해양수산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동 상황에서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고, “노조 역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                |     |                        |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br>선원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이정로 (051-773-5740) |
|       |                | 담당자 | 사무관 이은재 (051-773-5745) |



붙임

해수부-노조 간담회 사진

